



위성미가 16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천638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 환호하고 있다. 위성미는 최종합계 13인더파 275타로 2위 폴라 크리머(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

‘1천만달러 소녀’ 이름값 해냈다

LPGA 우승 문턱서 번번히 좌절... 미운오리새끼 오명

올 시즌 ‘톱10’ 7차례 등 상승세 끝에 화려한 백조로

‘골프 천재 소녀’에서 ‘미운 오리’로 전락했던 재미교포 골프 선수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마침내 무거운 족쇄를 벗어났다. 위성미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천638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첫 우승컵을 받아들였다.

2002년 13살의 나이에 LPGA 투어 대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위성미는 무려 8년 동안 ‘우여곡절’이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많은 부침을 겪은 끝에 거머쥔 우승컵이다.

2003년 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위성미는 최종 라운드에서 당대 최고의 선수인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챔피언십에서 겨뤄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이듬해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4위를 차지한 위성미는 2005년 LPGA 챔피언십 2위

와 브리티시오픈 3위 등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문턱까지 이르는 등 ‘뿔뿔’을 일으켰다. 그러나 프로에 와서는 오히려 성적이 내리막을 걸어 ‘천만 달러의 소녀’라는 별명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으로 뒤바뀌었다.

2006년 첫 메이저 3개 대회에서 공동 3위-공동 5위-공동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7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지만 그해 9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됐다. 2007년 5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한 대회 1라운드 도중 손목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지만 주위에서는 ‘18번 홀까지 88타 이상을 친 투어 비회원인 해당 시즌 투어 출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2007년 LPGA 투어 대회에 8차례 출전했지만 기권 2회, 첫 탈락 3회 등 ‘차라리 대회에 나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동정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다’는 동정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LPGA 회원이 되고 나서 처음 출전한 2월 SBS오픈에서 2위를 차지하며 부활을 예고한 위성미는 올해 18개 대회에 출전해 10위 안에 7차례, 준우승 2회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계속한 끝에 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프로에 와서 우승이 없는 것은 물론 아

마추어 때도 2002년 3라운드 대회로 열린 하와이주 대회, 2003년 스트로크와 매치플레이 대회가 섞여 열린 US여자 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대회 우승이 전부였던 위성미는 그간 ‘스트로크 대회 4라운드 우승 경험 없다’는 비난도 이번 우승으로 깨끗이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16일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확정 후 아버지 위병욱(왼쪽), 어머니 서현경(오른쪽)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야 우승 부담 털었다”

■ 위성미 일문일답

“경기가 끝난 뒤 (솔하임컵 동료였던) 프레셀과 크리머가 내게 달려와 맥주 세례를 퍼부었을 때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16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처음 우승한 뒤 “와! 우승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지 상상하지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분이 어떤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환상적이다. 아직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겠다.

-우승 뒤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나. 이 우승으로 부담을 털었다.
▲물론이다.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 기분은 아주 좋다.
-12번홀에서 샷을 친 것이 나무에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나무를 맞고 나왔을 때 ‘이러면 안되는 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나쁜 샷이었다. 이 7번 아이언샷 뒤 경기 내내 버디를 뽑아내려고 노력했다.

-올해가 LPGA 첫 시즌인데, 첫해를 자평한다면.
▲지금 평가하면 환상적이고 대단한 한 해였다.(웃음). 기복이 있었지만 올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18번홀의 세 번째 벙커샷을 칠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나.
▲그때는 관중에게 공을 날리지 않는 것만 신경 썼다. 아주 편안한 기분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쳤다. /연합뉴스

할아버지 살아 계셨다면...

■ 고향 장흥 주민들 환호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16일 오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할아버지의 고향인 장흥에도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지난해 돌아가신 위성미의 할아버지 고(故)위상규 박사의 친인척 5가구가 사는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에서는 우승 소식이 알려지자 ‘마침내 우승했다’며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느라 바빴다.

우승 직후부터 친인척들에게는 주변 지인들의 축하 전화가 폭주하면서 환몽안 전화가 불통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위성미의 고모할아버지인 최영창(73)씨는 “그동안 준우승만 수차례 하면서 마음고

생이 심했을 텐데 올해 막바지에 마침내 우승을 달성해 대견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친척들과의 연락을 도맡은 최씨는 “지난해 돌아가신 성미의 할아버지가 무엇보다 공부와 운동을 미국에 이바지하고 조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어야 하며 골프는 건강과 취미로 하라고 교육을 했다”며 “살아계셨더라면 이번 우승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명훈 장흥군수는 16일 오전 간부회의를 하던중 위성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미국 현지로 위 선수에게 “4만 군민과 함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해 달라”고 격려 축전을 보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컨디션 난조 ‘피겨 여신’ “올림픽 예방주사로 생각”

“좋은 경험이었다” 3개 대회 연속 그랑프리 대회 200점대 돌파를 목표로 했던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의 대단한 도전이 컨디션 난조로 벽에 부딪혔지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확실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김연아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막을 내린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를 맞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는 역대 최고점(76.28점)을 세웠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무너지면서 111.70점을 받아 총점 187.98점으로 우승했다.

은메달을 차지한 레이철 플래트(미국·174.91점)에 13.07점이나 앞서서 완승이었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던 김연아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점수였다.

김연아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총 7개의 점프 과제 가운데 3개의 점프(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러츠)에서 감점을 받았고,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6.3점)는 가산점이 ‘0’였다. 게다가 실패한 3개의 점프는 모두 김연아 필살기로 삼는 점프여서 타격이 크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는 전날 소프트웨어에서 무려 2.2점의 가산점을 이끌어낸 기술이었지만 이날은 첫 번째 점프의 착지부터 흔들리며 연결 점프마저 2회전도 그쳤다. 심판들은 -2점의 감점을 줬다.

점수 부담·체력 저하로 3차례 엉덩방아, 좋은 경험

더블이 연습 때부터 흔들렸던 트리플 플립은 아예 넘어졌고, 점프 난조 속에 단독 트리플 러츠마저 회전수 부족에 따른 착지 불만으로 1회전 처리되는 극악의 상황까지 경험했다.

그나마 가산점을 제대로 챙긴 점프는 더블 악셀(가산점 1.2점)과 트리플 살코우(가산점 0.4점),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가산점 1.2점) 등 3개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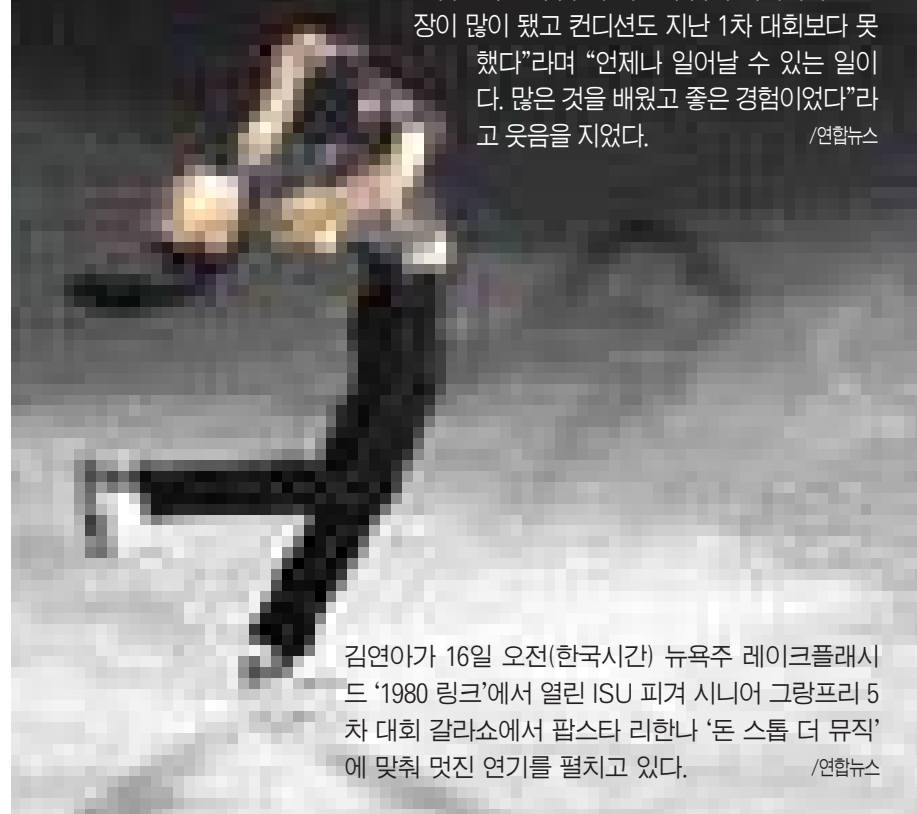
이 때문에 프리스케이팅의 기술점수(TES)도 51.18점에 그쳤다. 지난 2006-2007 시즌 시니어 대회 데뷔전이었던 그랑프리 2차 대회 ‘스케이팅 캐나다’ 때 51.60점보다 못한 역대 시니어 무대 최저점수였다.

하지만 김연아의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점검할 기회여서다. 말 그대로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맞은 셈이다.

김연아는 첫 점프 과제부터 실수를 했지만 3개의 스피ن 과제 가운데 2개를 최고난도인 레벨 4로 연기했고, 연기 막판 체력이 달리는 상황에서도 더블 악셀을 완벽하게 뛰며 1.20점의 가산점까지 얻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컨디션이었지만 스스로 몸을 조절하면서 결국 180점대 성적을 유지했던 것만으로도 유익한 경험을 했다는 게 김연아 스스로의 평가다.

김연아는 “점수에 대한 부담과 체력저하로 긴장이 많이 됐고 컨디션도 지난 1차 대회보다 못했다”라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김연아가 16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열린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갈라쇼에서 팝스타 리한나 ‘돈 스톱 더 뮤직’에 맞춰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할 것입니다 2. 공부 할 것입니다 3. 취업 할 것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itf.com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소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80
리산점 (063) 851-2422